

“아이 마음속 같은 시 읽으면 마음이 예뻐져요”

아동문학가 서향숙 교사

아하하하 아하 아하하 아하하
 구관조님 안녕하세요
 구관조님 안녕하세요
 참 예쁘네요 참 예쁘네요
 새장속에서 커다란 눈을 데굴데굴 굴리며
 뽀족한 부리로 말도 잘하는 너
 그러나 거짓말은 하면 안돼

(서향숙 동시 '구관조')



교직 생활을 마감하며 122편이 담긴 동요곡집 '시골 빈집에'를 출간하고 시낭송·동요 부르기 무대를 마련한 서향숙 남초등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은 2학년 4반 아이들과 환하게 웃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8년 교단 떠나며 122편 동요곡집 '시골 빈집에' 펴내

7일 남구문예회관에서 아이들과 시낭송·동요 어울림 무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박민주(광주 남초교 2년)양이 동시 '구관조'를 낭송하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복사꽃이 환한 집'을 낭송하는 이채은(남초교 4년)양, '백목련과 자목련'을 낭송한 윤이진(살레시오 1년)양의 수줍은 모습도 귀엽다. 겨울방학을 마친 아이들은 4일 광주 남초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모여 낭송 연습에 한창이었다.

아이들이 낭송한 동시는 모두 광주 남초등학교 서향숙(63·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교사의 작품이다. 28년간 몸 담았던 교단을 떠나서 서 교사는 최근 특별한 책을 펴냈다. 서향숙 동요곡집 '시골 빈집에'다. 자신이 써온 동시 122편을 동요로 만들어 악보와 함께 실었다. 작곡은 담양 출신으로 MBC 창작 동요제에서 '반딧불'과 '바람'으로 두차례 대상을 수상한 정동수(파라세 창작동요회 부회장)씨가 맡았다.

서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다. 오는 7일 오후 7시 광주남구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시골 빈집에'는 시낭송과 동요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다. 두 명의 아이들이 짝을 지어 한 사람은 시낭송을 하고, 한 사람

은 그 시를 노래로 부른다. 초등학교 때 제자로 율해 대학생이 된 황지영씨와 꿈을 품은 메아리 중창단, 칸타빌레 중창단도 출연한다. '산속 용달샘', '어머마 할 거야', '난 다 알아' 등 모두 30여편의 시가 낭송되고, 불려진다.

지난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시골 빈집에'가 당선된 서 교사는 방정환 문학상, 새빛문학상 등을 받았고 동시집 '연못에 놀러온 빔방울' 등을 펴냈다. 명지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광주교육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다.

살레시오, 계수초등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은 서씨는 독서교육과 글 쓰기 교육을 열심히 진행해 왔다. 담임을 맡게 되면 아이들과 독서신문을 만들고 시를 읽고 암송한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2편씩 시를 읽고 학기말에는 시낭송 대

회를 연다. "아름다운 언어로 된 시를 읽으면 마음이 예뻐져요. 인성교육에도 시 만큼 좋은 게 없죠. 프랑스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 혼수로 200편의 시를 의무게 해서 보냈다고 해요. 시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라는 표시가 되는거죠."

글쓰기 역시 서 교사가 강조하는 거다. 매주 아이들은 편지글, 일기, 아동시, 독서록 등의 카테고리 나눠 글을 쓴다. 교실에 놓여 있던 '민주'는 생각이 얼마만큼 자랐을까, '인우 글방' 등은 아이들이 1년 동안 쓴 시를 모아 만든 개인 문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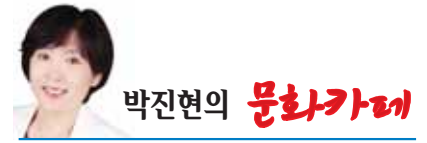
"초등학교 때는 학교 합창반, 성인이 돼서는 순천시립합창단에서 활동했었어요. 유년시절에 동요를 부르며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아요. 아이들이 요즘에는 동요보다는 가요를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부를 수 있는 동요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독서교육에 일가견이 있는 서 교사에 학부모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그녀는 "무조건 책 읽어라, 다 읽었냐"가 아니라 단계별로 독서교육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먼저 대강 줄거리를 읽고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등 3~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자세히 읽고, 질문에 답하고, 다시 한번 읽는 5단계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책을 읽고 난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아이들의 시 낭송이 서툴고 미흡하지만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날 아이들이 시를 낭송하고 또 그 시로 노래하는 걸 들으면 절로 마음이 열릴 거예요."

서 교사는 40년 동안 아이들과 생활하며 힘든 적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암송하고, 동시와 동요, 동화를 쓰면서 행복했던 시절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몸집보다 큰 붓집을 머리에 인 어머니와 그 옷자락을 잡아끄는 아이('나의 어머니'), 성냥갑을 무질서하게 포개놓은 듯한 판잣집('난지도'), 허리가 꺾인 채 화병에서 말라져 가는 꽃('해바라기')..

가까운 과거에는 흔해 빠졌을, 유희의 오브제로 선택하지도 않았을 이미지들이 4개의 전시실에 펼쳐졌다.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거나, 혹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장면들이다. 그중에서도 '나의 어머니'는 가슴에 목직만 돌 하나를 얹어놓은 것 같다. 이 어둡고 암울한 그림에 화가는 이런 글을

이었다. 하지만, 율형성 심부진 증 진단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1988년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작가는 짧은 생애에도 80년대 개발 열풍에 휩싸인 서울을 풍자한 '공작도시' 시리즈 등 400여 점을 남겼다. 시인 이성부는 "손상기는 붓과 나이프로 우리 시대의 고통받는 삶을 형상화 한 '문제의 화가'라고 평했다. 하지만, 손상기라는 이름 석 자가 알려지게 된 건 불과 10여 년 전부터. 일찌감치 그의 작품성을 알아본 서울 샘터화랑과 전혁림 화백 등 몇몇 미술계 원로, 손상기 기념사업회가 고군분투한 결과다. 덕

‘문제의 화가’ 손상기를 기억하자

적어놓았다. "무겁고 무겁다/인생 삶/집이 무겁고 아이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고달픈 것/그들을 도우소서."

지난달 26일 여수예술마루에서 막을 내린 '손상기 25주기전-고통과 절망을 끌어안은 예술혼'은 우리가 지나온 삶의 궤적들을 반추하게 하는 자리였다. 그의 25주기를 맞아 여수시와 손상기 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전시는 시대별 작품(127점)들을 아우른 첫 기획전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여수에서 태어난 손상기(1949~1988)는 세 살 때 앓은 척추만곡증으로 성장이 멈춘, 키가 140cm 정도인 골주화가다. 1979년 원광대를 졸업한 직후 상경한 그는 사글셋방에서 지독한 가난과 주변의 방해도 굴하지 않고 창작에 전념했다. '예술혼에서 짜낸 진액'으로 그린 그림들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나

분에 근래 몇 년 새 국내 미술시장에서 최고가로 거래되는 블루칩 작가로 떠올랐다.

비록 전시는 끝났지만 손상기 재조명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여수시가 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손상기 미술관' 건립을 논의중이고 드라마틱한 그의 삶을 영화로 제작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반짝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특히 '손상기 미술관'은 여수는 물론 오는 2015년 개관예정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경쟁력이 충분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손상기 25주기전'을 광주시립미술관에서도 개최해 '바람'을 이어가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문화의 시대, 지역 예술가를 콘텐츠로 키워내는 건 지자체의 '행복한' 의무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문화재단 공모사업 '순풍' 국비 11억4천만원 확보

광주문화재단이 최근 산단 문화재생사업 등 3개 사업에 국비 11억4천만원 확보했다.

4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최근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공모 프로젝트에 응모해 2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10억

원) 규모의 문화프로젝트를 수탁했다.

산단 문화재생사업은 노후한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문화예술체험 콘텐츠 및 문화예술공간 기획·운영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사업으

로, 소촌농공단지에 '소촌아트팩토리(S.A.F)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72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서 7000만원 등 1월

말 현재 총 11억42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재단은 올 상반기와 하반기 정부기관의 각종 공모사업이 전개될 경우 수주 규모가 확대돼 지역 문화인력 양성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문화 다양성을 위한 무지개 다리 사업 등 총 12억4900만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수행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15일부터 '토요 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오는 15일부터 '신나는 토요일 즐거운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달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특별전시와 연계한 이분화 습과 체험학습, 전시관람으로 꾸며진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53. /김경민기자 kki@

2014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바라며
 더불어
 "경매"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주) 대신경매 김 봉수 드림
 (주) 우리옥션 이 재우 드림

경매 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